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AUTUMN 2020 가을호



조선통신사

AUTUMN 2020 가을호



승사록

乘槎錄



<표지 설명> 원중거元重擧 『승사록乘槎錄』

| 1763년 | 3권 4책 | 12행 22자, 24.4x16.5cm | 고려대학교 도서관 육당문고 소장

2017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기록물 목록 중 한국 측(K) 여정의 기록(II) 25번으로, 1763년 계미통신사행 여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통신사행록이다.

CONTENTS

- 조선통신사 자료 발굴** 04 **조선 후기 통신사 역관** 譯官, 일본 지식의 생성자가 되다
정은영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조선통신사 기록물 소개** 14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의 과제**
나카오 히로시
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일본학술위원회 위원장
- 계미(1763)통신사행을 기록한 원중거의 「승사록乘槎錄」** 20
정훈식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 연고지 이야기** 28 **수백 척의 선박과 막대한 경비를 들여 조선통신사행을 영접한 시모노세키下関를 찾아서**
박화진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한일 문화 칼럼** 36 **맑은 듯 다른 한일 유통, '진화와 혁신의 시사점'**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만화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42
남정훈 웹툰 작가,
다나가 토키히코 기타큐슈시 만화 뮤지엄 관장
- 조선통신사 24時** 50 **조선통신사 뱃길 탐방 '배 타러 가자' 후일담**
참여 시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통신사선 운항 관계자
- 5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사업**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조선통신사·AUTUMN 2020 가을호

발행일 2020. 9. 30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 744. 7707
편집위원 한태문, 박화진, 백태현, 이주영, 김경일
편집기획 문화유산팀 양주원, 김보미 Tel 051. 631. 0858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조선 후기 통신사 역관譯官, 일본 지식의 생성자가 되다

朝鮮後期の通信使構成員の一人である「訳官」、
日本に対する知識の作成者になる



글 정은영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鄭恩永 釜山大学 国語国文学科 非常勤講師



01

朝鮮後期に派遣された通信使の訳官は、党上訳官、上通事、小通事、押物通事など20名あまりに上った。彼らは通信使と対馬藩又は幕府の間で行われる協議に参席し通訳をすることで、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以降、朝鮮と日本の外交・文化の関係形成に多大な貢献を果たした。また、日本の技術や学問の傾向を把握できる器物や書物を手に入れ伝えるなど、使行団が日本を理解する一助となった。しかし、通信使派遣の目的が祝賀使節として定例化され、通信使に採用される訳官が増員すると、1682年の第7回使行から、訳官が通信使行録の著述主体として格上げされることとなった。通信使訳官らは使行録を著述しながら、知識の正確性を追求し、客観的に日本を見ようと努力した。さらに、外国語を使いこなせる長所を遺憾なく発揮し、日本国そして日本人の実態を最も忠実に記述するために尽力した。



02

- 01 <인조14년통신사입강호성도仁祖十四年通信使入江戸城圖>에 그려진 역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02 <숙종37년통신사행렬도宗肅三十七年通信使行列圖>에 그려진 당상역관(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중 한국 측 기록물의 상당수는 조선 후기 통신사가 남긴 사행록이다. 삼사三使를 비롯하여 제술관製述官과 서기書記, 군관軍官과 통신사선의 선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행원들이 시대의 관점 혹은 각자의 시선으로 일본에서의 체험을 글로 남겼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역관이 남긴 기록도 존재한다. 하지만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이라고 하면 으레 사람들은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이나 조엄의 『해사일기海槎日記』, 원중거의 『승사록乘槎錄』 등 삼사나 서기의 글을 떠올린다. 아무래도 문사文士가 쓴 기록이 외교실무자인 역관의 그것보다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내용을 담았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며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 후기 조·일 외교전의 최전선에 있던 실무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통신사행록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

통신사 역관의 역할

역관은 통역과 번역 등 역학譯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로, 조선 조정에서는 태조 2년인 1393년 육학六學을 설치하면서 병학兵學·율학律學·자학字學·의학醫學·산학算學과 함께 역학을 두어 양가의 자제를 뽑아 교육하였다. 또 역학의 교육 분야를 한학에 국한하지 않고 몽학蒙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으로 확대하는 한편, 역과譯科 시행과 역학 취재取才 등을 통해 역관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역관은 중국, 일본 등과의 정치 외교는 물론 국제무역, 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파견된 통신사 역관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이 외교적·문화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일본에 파견된 역관은 당상역관堂上譯



03 닛코 도쇼구日光 東照宮
04 소 요시나리宗義成

06  관, 상통사上通事, 소통사小通事, 압물통사押物通事 등 20여 명에 달했다. 이들 역관의 주요 임무는 통신사와 쓰시마번對馬藩 혹은 바쿠후幕府 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참여해 통역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은 사역원司譯院 역관 중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자만을 선발하였는데, 특히 삼사三使의 통역을 담당했던 당상역관은 교회敎誨, 정正, 교수敎授, 어전御前, 훈도訓導, 상통사, 연소총회年小聰誨의 소위 칠사七事를 모두 거친 훈상당상訓上堂上 중에서 선발하였다.

통역 외에도 통신사 수행 역관은 크게는 외교 의전의 일정을 조율하는 일에서부터 작게는 사행에 소요되는 양식의 관리 등 사행 노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역관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일본 정보를 삼사를 비롯한 다른 사행원들에게 전달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데에 일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1636년 병자사행 때의 닛코日光 방문이었다. 병자사행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태평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실제로는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과 관련이 있었다. 1633년 쓰시마번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쓰시마 번주의 국서개작國書改作을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칸과쿠關白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는 이 사건의 재판을 직접 주관하여, 시게오키와 겐포玄方は 유배를 보내고 외교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은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쓰시마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에게는 통신사 파견을 조선 조정에 요청하게끔 하여 그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에서 중개자



04

역할을 하고 있었던 요시나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런데 국서 전달을 위해 에도江戶에 머물고 있던 통신사는 일본 측으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의 원당 도쇼구東照宮가 있는 닛코 방문을 요청받는다. 합의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요구에 삼사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요시나리의 지위가 여전히 위태로우며 통신사의 행보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질 것이라 역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천하명승지 유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처럼 역관이 수집한 일본 정보는 통신사의 행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조정으로 전해져 대일본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통신사 수행 역관은 일본의 기술이나 학문 성향을 알 수 있는 기물과 책을 구해 다른 사행원이나 조선 조정에 전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으로 파견되는 통신사에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총의 구입이었다. 1607년 정미사행 때에는 역관 최의길崔義吉 등이 오사카大坂에서 조총 5백 자루를 구해 조선에 가져갔고,

1624년 갑자사행에서는 역관들이 일본에 조총이 유입된 내력이 적힌 『철포기鐵砲記』와 같은 기록을 구해서 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관의 임무는 18세기에도 이어져 1747년 정묘사행의 당상역관 박상순朴尙淳은 조정에 바치기 위해 일본을 왕래하던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총을 구매했다. 또한 역관들은 이전 통신사가 남긴 기록을 통해 일본의 학문 성장을 알게 된 후 대 사행원들의 부탁을 받고 일본 고학古學과 관련된 서적을 구하거나 관련 인물을 만나게 주선하기도 하는 등 다른 사행원들이 노정 상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외교 상대국인 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통신사 역관의 사행록 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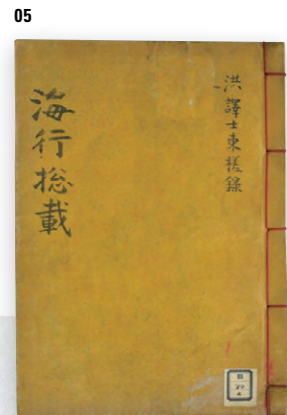
역관은 문자를 자유자재로 읽고 쓸 수 있어야 하고 현지인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과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삼사의 파견이 일회성인데 비해, 역관은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통신사로 차정되거나 대대를 이어 사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 지식이 역관 개인 또는 그 가계로 전승·축적되어 깊이 있는 일본 탐색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 역관이 사행록 저술의 주체가 된 것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17세기 전반 통신사의 일본 지식 탐색은 제한적이었다. 통신사를 배종했던 쓰시마번이 통신사행원과 일본인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일본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단속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신사 내부에서도 사행록의 내용이 일본에 전해져 외교적인 분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 사행원의 사적 기록을 엄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고 통신사의 파견이 일본 칸파쿠의 습직襲職과 약군若君 탄생에 대한 축하 사절로 그 성격이 변모하면서 통신사의 일본 지식 탐색과 수집도 비교적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분의 사행원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일본 체험을 기록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역관 역시 단순히 일본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행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며 일본 지식의 생성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더불어 17세기 통신사 수행 역관의 제도가 변한 것도 역관이 지식 생성의 주체로 나서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역관의 수를 늘려달라는 일본 측의 거듭된 요구에 조선 조정에서는 1682년 임술사행부터 수행하는 역관을 증원하였다. 2명이었던 당상역관의 수를 3명으로, 또 3명이었던 압물통사의 수를 4명으로 늘렸다. 역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 지식을 탐색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도 확대되었다. 왜학역관의 경우, 통신사 이전에 문위사問慰使로 일본에 파견되었거나 왜관倭館에 근무하면서 만났던 일본인 인맥

을 활용하여 일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통신사행에 참여하는 한학역관漢學譯官을 2명으로 늘린 것 역시 역관이 일본 지식을 생성하는 데 또 다른 영향을 미쳤다. 실제 통신사행에 중국어 담당의 한학역관을 함께 파견한 것은 일본 내에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어가 가능한 일본인을 통해 새로운 일본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통신사행원과 일본 지식인 간의 만남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17세기 후반부터는 한학역관이 직접 일본인과의 필담창화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일본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식을 생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듯 통신사 파견의 목적이 하례 사절로 정례화되고 통신사에 차정되는 역관이 증원되면서 1682년 임술사행부터는 역관이 통신사행록의 저술 주체가 되었다. 임술사행의 당상역관이었던 홍우재洪禹載와 한학역관 김지남金指南은 자신의 사행 체험을 각각 『동사록東槎錄』과 『동사일록東槎日錄』으로 남겼다. 이 두 사행록은 임금께 사조辭朝하고 한양을 떠난 시점부터 조정으로 돌아와 복명復命하기까지 7개월간의 여정을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별도의 문견록 없이 일기만으로 사행록을 구성한 것은 당시의 상황과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가장 잘 반영하여 기록할 수 있는 체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김지남의 『동사일록』에는 일기 외에 조선과 일본 측의 예단 물목을 적은 글과 사행 일정을 정리한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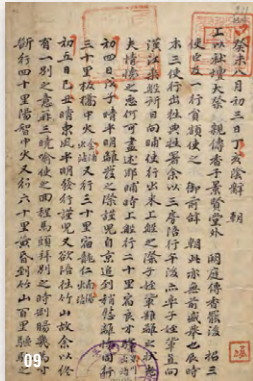
05, 06 홍우재洪禹載 『동사록東槎錄』



07 김지남의 묘와 비갈



08 김지남金指南 『동사일록東槎日錄』



09 오대령吳大齡 『명사록溟槎錄』
10 오대령의 초상화

이후 역관의 사행록 저술은 1711년 신묘사행, 1763년 계미사행으로 이어졌다. 신묘사행의 압물통사로 파견되었던 김현문金顯文은 『동사록』을 남겼다. 김현문은 김지남의 둘째 아들로 대대를 이어 통신사로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자신의 일본 체험을 사행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김현문의 『동사록』 또한 조선을 떠났다 귀국하기까지의 여정을 매일 기록하였는데 압물통사로 물품 관리 업무와 실무를 담당했던 하급 역관답게 통신사행 노정 중의 의례는 물론 통신사 일행에 지급된 지공 내역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김현문의 사행록에는 『동사일록』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전대 사행의 일본 지식이 집안 내에서 사행록을 통해 전해졌음을 보여준다. 계미사행의 한학역관 오대령吳大齡도 『명사록溟槎錄』을 저술하였다. 통신사 역관으로 차정되었을 때 오대령의 나이는 63세였다. 하지만 그는 통신사행을 ‘쾌사快事’라 하며 일본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에 걸맞게 『명사록』은 전대 역관들이 남긴 사행록의 체제와는 달리 일기 이외에도 문견록인 『추록追錄』, 통신사행에 대한 소회를 읊은 『별록別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대령은 일본의 주요 지역을 중국과 비교하는 등 일본의 발전상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도록 사행록을 기술하였다.

역관이 저술한 사행록의 특징

역관은 사행록을 저술하면서 지식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다. 현재의 의례, 행동 하나, 복식 등이 이전의 사행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외교적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 사행의 전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관들이 추구한 지식의 정확성은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역관들은 일본인이 사용하는 용어를 되도록

그대로 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으면 일본의 것을 먼저 제시하고 조선에서 쓰는 단어나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과는 다른 관직명, 도량형, 사행 노정 중 일본 측에서 사행원에게 선물하는 과일이나 음식까지도 일일이 그 명칭을 기록으로 남겼다. 예를 들면 ‘지제枝柀’, ‘구년모九年母’라 쓰고 그것이 곧 우리의 꽃감과 꿀이라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부기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조선식으로 개념화하여 기록하였다. 아울러 조선에는 없는 음식이나 기물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곧 당상관이 탈 승물乘物 방언方言의 ‘노리모노老里毛老’로 우리나라 옥교屋轎와 비슷한데, 긴 나무 하나를 위에 가로지르고 두 사람이 앞뒤에서 어깨로 메니 이른바 현교懸轎 및 원역員役 이하가 탈 말 70여 필이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 김지남, 『동사일록』, 6월 24일(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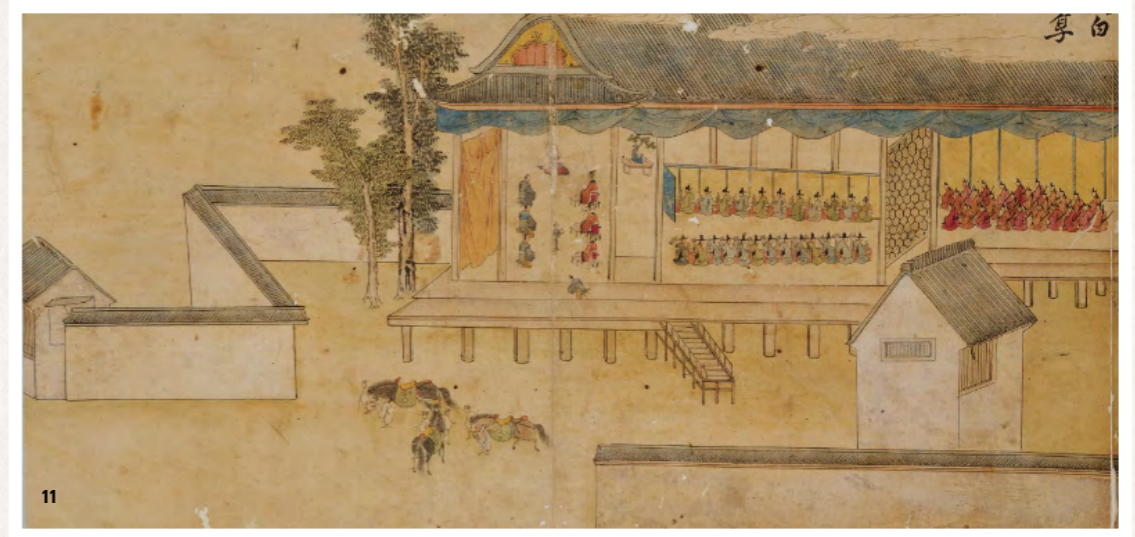
김지남은 일본 측에서 당상역관에게 제공한 가마 형태의 탈 것을 보았는데, 조선의 옥교나 현교에 빗대어 직접 보지 않은 조선인도 그 모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아울러 역관들은 일본식 한자어나 기물의 이름에 일본어 음을 한자로 표기하여 그 소리까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이런 경향은 일본의 지명이나 인명을 기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사행록을 읽을 후대 통신사행원들을 위한 배려이자, 정확한 일본 지식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통신사 수행 역관들은 일본 지식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도 그것이 가진 양가성兩價性을 인정하거나 특정 속성이나 부분에 한정하여 평가를 하였다. 오대령은 왜관倭館에서 이루어진 접대 자리에서 일본인을 처음으로 보고는 비록 일본인들의 의복은 괴이하고 언어는 제비가 지저귀는 것 같으나, 그들의 모습이 조선인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읍례揖禮 역시 중국과 흡사하다고 기록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인이 맨살을 드러내는 것이나 검은색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일본의 기술과 제도, 일본인의 질서의식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맨발과 문신, 흑치黑齒 등



은 조선인에게 오랑캐적 습속으로 여겨져 일본인을 비하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오대령은 이마저도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차이로 기술하였으며 오히려 조선이나 중국과 비슷한 점도 함께 기술하여 관련 지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역관의 이러한 면모는 사행 노정 중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행 노정 중 조선과 일본의 갈등이 표출되는 지점은 바로 발행의 시기를 정하는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국서를 전달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삼사와 국내적 상황이나 날씨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려는 쓰시마 번주 사이에서 의견 대립은 종종 일어났다. 그래서 일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을 강행하거나 항구에 정박하려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사행록에서는 통신사의 잘못을 언급하기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쓰시마의 계략이나 일본 측의 무능함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역관들은 사행단 내부의 문제도 가감 없이 기록하여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잘못을 평가하고 이후 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전대 통신사행록을 숙지하고 사행에 나선 사행원들은 기존의 일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을 살폈다. 그래서 이전의 기록은 일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존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또 기존 지식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을 더하는 과정에서 전대 사행원과 다른 시각으로 일본 체험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쓰시마 번주가 통신사를 위해 베풀었던 연회도 그런 경우였다. 위험한 해로와 육로를 거쳐 에도에 도착한 통신사를 위로하기 위해 쓰시마 번주는 연회를 베풀었다. 하지만 원숭이 놀이, 마술 등의 잡희로 구성된 연회는 조선과는 상당히 달라 오히려 통신사행원에게는 고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역관 김현문은 공연을 위해 만 들었던 무대부터 광대들이 연행했던 잡희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질적이라고 했던 잡희 중에 오히려 조선의 놀이와 유사한 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김현문은 칸파쿠의 연향에서 만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로부터 일본의 연회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무악舞樂의 근원이 당악唐樂과 고려악高麗樂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밝혀 적었다. 이와 같이 통신사 역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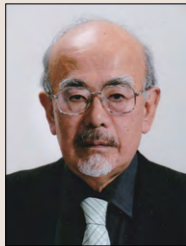
11 이성린李聖麟 「사로승구도樓路勝區圖」 중 〈관백연향關白燕享〉

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화이론華夷論이라는 추상적 관념에 기대지 않고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인을 최대한 그 실체에 가깝게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역관이 사행록 저술을 통해 생성한 일본 정보와 지식은 당시 일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통신사행에 앞서 연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한학역관들은 일본에서의 견문을 중국과 비교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일본 정보는 동아시아 내에서의 조선의 상황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역관들의 객관적인 태도는 때로는 일본에 영합하는 것으로 여겨져 당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그들이 남긴 통신사행록 역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듯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조선 후기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그들이 남긴 사행록을 다시 읽어볼 때라는 생각이 든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의 과제

朝鮮通信使 「ユネスコ世界の記憶」 登録後の課題



글. 나카오 히로시 仲尾宏
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일본학술위원회 위원장
元朝鮮通信使ユネスコ記憶遺産 日本學術委員会 委員長

ユネスコの世界記憶遺産の登録にあたって、日本側の学術委員会では登録すべき史資料の選定基準をまずすでに国や地方自治体によって文化財として指定されている関係資料をまず第一にとりあげた。ついで未指定の資料については私たちの学術委員が現地調査をおこない、採択の基準に合致した資料を候補にあげて採否を確定していった。

日本では1945年以前の日韓関係の研究は一部をのぞいてきわめて希薄であった。戦後では在日韓国人の一部の研究者の普及活動や地域の文化活動機関・郷土史家の研究によることが多かった。しかし今後の課題としては日本の近世の全体的対外関係、とりわけ東アジア全域の近世の政台・経済・文化交流の実態に朝鮮通信使の歴史的意義の位置づけも必要であろう。そのことは韓国での研究活動についてもいいうるであろう。

le Japon et la Corée



01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심포지엄(2016.11.15) 02 1차 한일 공동 학술회의(2014.12.20) 03 6차 한일 공동 학술회의 자료(2015.08.24)

1. 일본에서의 등재 기준과 후보 물건 추천의 입장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있어, 우선 다음의 기준으로 후보 물건 추천에 착수했다. 첫 번째는 이미 국보나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물건을 우선으로 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지명한 전문가에 의한 신중한 조사와 감정의 결과가 이미 확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미지정 물건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몇 개의 새로운 물건이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시되어 왔거나, 문화재 전문가라도 통신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다.

큰 과제의 하나는, 이미 저명한 자료 목록인 『소가(宗家 문서)』의 포함 여부였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다시로 가즈오(田代和生) 선생의 총괄적인 연구와 그 성과가 나와 있고 통신사 연구에서 다수의 불가결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은 한일 양국 연구자가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채택해야 하는 부분과 그 기준의 책정에 대해 한정된 시간 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 유감스럽지만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또 위의 기준에 부합해도, 정해진 날짜까지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리스트에 넣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외교의 기록 3건 19점, 여정의 기록 27건 69점, 문화교류의 기록 18건 121점, 총 48건 209점이 일본 측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기록물로 결정되었다.

한편, 후보로 추천된 문화재의 선정 기준은 첫째, 이미 국보나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지정한 물건을 우선으로 해서 리스트를 정하였다. 미지정 물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이 현장 조사 과정을 거쳐 등재 후보로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찾아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문화재 후보로서 실지 조사를 거쳐 지정되도록 요청하고 조사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위원이나 통신사 연구자만이 알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상호 간의 토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의 가치 유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 물건에 한해 후보로서 채택했다.

처음부터 후보에 포함시켜야 할 물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이나, 신청기한까지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은 신청 목록에서 배제해야 했다. 특히 외교문서에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어쨌든 지정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유네스코에서 표방하듯이 이들 문화재가 많은 사람에게 공개될 때 비로소 인류의 ‘유산’으로서 가치가 발견되는 것으로 관계기관에 부과되는 임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의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의 추천은 어디까지나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것들로, 이들 물건 이외에도 귀중한 사료가 존재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기록유산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사료와 자료가 전하는 인류의 역사가 구축해 온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활용이야말로 이 제도가 존재하고, 또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1607년부터의 한일 양국 간 외교 체제는 통신사가 마지막으로 일본의 땅을 밟은 1811년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연구자들 사이에는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의 파견 요청은 1866년 14대 장군 이에모치家茂의 취임 축하 사절 파견 요청 때까지 관례에 따라 교섭이 거듭되었다. 그 후 이에모치家茂의 서거 및 러시아 군함의 쓰시마 이모자키 芋崎 점령 등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1876년 외교 교섭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후 1868년 도쿠가와 정권의 붕괴로 인해 이 초청은 중지되었다. 여기에서

적어도 일본 정권 담당자가 통신사 외교 중지 등에 대해 언급한 사료를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2. 통신사의 의의는 무엇인가 - 일본 연구의 회고와 현황

여기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일본의 한일 관계사 연구의 회고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근대에 들어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급속히 동아시아, 즉 동양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그 주류는 중국사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문화와 문화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메이지 시대부터 한국은 언제나 지배 대상이었으므로 그곳에서 꽃을 피운 시문과 회화, 그리고 도자기 등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 영위되어 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극히 희박하였다. 따라서 고대는 별도로지만 중세와 근세의 한일 관계에 대한 관계사 연구는 극히 미미하였으며, 있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는 지역의 국토와 백성이라는 시점에서 이웃나라를 보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에도 시대-근세 시대에 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존재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가혹했던 임진왜란과 20세기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 사실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기억과 역사 기록 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600년대 초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한일 간의 평화와 공존의 사실도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04 8차 한일 공동 학술회의 (2015.11.07)

었다. 사람과 문물의 왕래가 이루어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이러한 교류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을까? 그 교류의 실체는 어떠했을까? 그 성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상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 과제와 탐구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며 다방면에 걸쳐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으로의 등재 성공은 이에 대한 좋은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45년 일본 패전 후 일본인의 조선통신사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전쟁 전의 미미했던 연구를 별도로 한다면, 1980년 이후 재일한국인·조선인 연구자들의 연구와 사료 수집, 계발 활동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다. 그것은 가혹한 일본 강점기에 일본에서 지냈던 재일의 체험을 되돌아보고, 폄하되어 왔던 한국 문화의 정당한 평가와 복권을 추구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숨겨져 왔던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이를 재평가하는 방향의 연구로 진전되어 왔다. 또 일본 각지의 지역문화 재발굴 과정에서 향토 문화의 자랑으로 통신사의 사적이 거론되는 일도 종종 있었

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채택하는 모든 학교 교과서에 크든 작든 통신사가 게재되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었던 ‘에도 시대 일본의 대외관계는 쇠국이었다’라는 기술은 소멸되었다. 또 전근대 한국 문화의 기술도 조금씩이지만 증가하였다. 특히 이 글을 통해 명확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조선통신사의 왕래는 문화교류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일 양국 간의 필요한 외교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절단이었다라는 인식이다. 이 점을 한일합동학술위원회에서도 나는 강조했다. 단순한 문화 사절이라면, 매년 500명 가까운 대 사절단을 구성하고, 쌍방이 거금을 들여 12차례나 큰 이벤트를 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쿠가와德川 정권은 왜 통신사를 맞이하였던가? 이는 당시 일본 통상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유럽 세력의 배제 및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제한하고, 임진왜란의 전후 처리 완료를 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의 조선왕조로서는 주요한 국내외적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도쿠가와德川 정권과는 다른

반도 국가로서의 과제였다. 우선은 임진왜란의 종전 처리와 전쟁 후의 부흥, 민심의 장악, 북방 여진족의 위협 증가, 중주국 중국의 약화 등의 과제는 일본보다 월등하게 중대하고 자칫 한발 잘못 디디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세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따라서 남방의 안정은 지상 과제였다. 이를 위해 포로의 조기 송환만을 조건으로 대일 강화를 단행하기로 하였고, 일본 측이 재침략을 포기했다며 대일 국교 회복에 나섰다. 또 부산에서의 왜관 무역을 쓰시마에 허용하여 그 경제적 안정책을 보증함으로써, 나가사키를 경유하는 동남아 상품의 지속적인 수입로를 확보했다. 또 일본으로 파견하는 사절단에 일류 지식인, 문화인을 합류시켜 '동쪽 오랑캐東夷'의 나라에 왕조 문화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회담겸쇄환사'의 명칭은 바로 그러한 왕조 정부 대일외교의 기본적 입장으로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1635년 쓰시마번對馬藩의 내부 분쟁이 막부의 개입으로 해결된 때부터 왜란 전 청하였던 '통신사'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는 '통신사'는 약칭으로 '신사信使', '내빙사來聘使' 혹은 '한사韓使' 등으로 불렸다. '내공사來貢使'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의 같은 외교 사절인 '류큐국사琉球國使'와는 명확하게 격차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해외의 문화 정보도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조선, 류큐琉球 및 나가사키의 중국인에게서 얻었고, 일본의 사정도 이 루트를 통해 해외로 흘러나갔다. 16세기 이후 대형 선박의 취향은 이미 정보의 '쇄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왕조, 지금의 한국 측으로서는 통신사와 비교되지 않는 월등한 밀도로 '연경사燕京使'를 중국으로 파견하여 얻는 해외 정보는 더욱 농후했을 것이다. 정권의 담당자는 한민족漢民族이 아닐지라도, 훨씬 오랜 전통과 전파력을 가진 중국 문화는 한반도의 문화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통신사가 일본에 가져다 준 문화 정보 또한 강렬한 중국 문화에 기원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즉,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정보 교류라는 측면에서 조사도 필요하다.

3. 앞으로의 과제와 문화교류의 과제

이상과 같이 양국 위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세계유산의 기준에 맞추어 신청할 물건을 선별, 총 111건 333점의 기록을 ①의 교문서 ②여정의 기록 ③문화교류의 기록으로 분류하여 신청하였다. 이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 자로, 신청한 전 목록을 인정받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향후 과제로서는 한일 양국이 공동 기획하는 일반인 대상의 대규모 공개 전시 및 합동 심포지엄 개최, 나아가 자치단체와 국가 지정 문화재 등록 확대, 물건의 완전한 보존·복원체제의 정비 등이 우선 마련되도록 요구하는 것과, 소수에 불과한 양국 연구자 계층의 확대 및 연구 심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공동연구회가 지속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과제에 부응하는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여러 국가 기관을 비롯한 공적 기관의 지원, 여러 대학에서의 강좌 증설과 지역에서의 다양한 지원체제 정비 등이 요망된다. 한국에서는 부산 이외의 여러 도시로 통신사의 인식 확대, 서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내 통신사 연구자 양성체제 정비 등을 과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과제로 다루어질 때, 비로소 세계유산으로서 조선통신사의 의의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양국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에서 배웠으면 한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전후 관계 개선 사례이다. 전쟁 후 구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의 샤를 드 골 대통령은 조속히 '엘리제 조약'이라는 우호 교

류 조약을 파리에서 체결했다. 이로 인해 수백 곳의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양국의 청년과 시민 수만 명이 상호 방문하여 선린우호 관계를 쌓고 있다. 그리고 양국은 오늘날 EU의 기축국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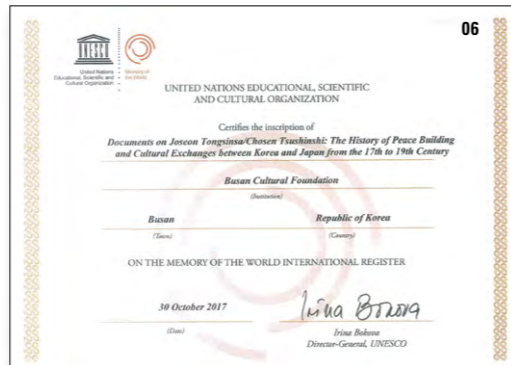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사적 관점과 함께 통신사 연구의 심화와 시민 대상의 홍보를 권장하는 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열거하고자 한다.

먼저 첫째로, 젊은 세대 연구자의 양성이다. 통신사 연구 분야는 광범위해서 개별 역사 연구를 지도할 수 있는 연구자가 일본, 한국 양국 모두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 일본의 경우는 통신사 자료가 관동이서關東以西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각 지역에서의 연구와 자료 발굴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는 이미 각 지역에서 그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각 지역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 대상의 계발 활동도 지속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서울의 각 연구기관에는 방대한 1급 자료가 산적해 있고 그 대부분이 손조차 대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어찌 되었건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는 당사자는 물론이며, 한국에서는 부산문화재단,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연구지연락협의회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며, 더불어 각각의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공을 기회로,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05 유네스코 일본 대표부 방문(2016.11.16) 06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계미(1763)통신사행을 기록한 원중거의 『승사록乘槎錄』

癸未(1763년)통신사행을 기록한
元重擧의 『乘槎錄』



글_ 정훈식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鄭勳植 蔚山大学 国語国文学部 客員教授



『乘槎錄』は、1763年の第11回の通信使行に書記として参加した元重擧が書き残した通信使行録である。『乘槎錄』の特徴は、日本の文物や山河など多岐にわたり詳しく記述したことにある。特に日本の学問動向を注視し、その発展ぶりを高く評価した。そして、文士交流の要とも言える詩文唱話の限界を指摘した半面、筆談を重要視し、次の使行への教訓を残した。何よりも『乘槎錄』の際立つ特徴は、これまでの通信使行について総括的に評価し、新しい改革案を提示したことにある。ここには交隣関係を続け、かつ強化したいという願いが含まれている。

원중거, 계미통신사행의 여정을 기록하다

조선통신사 저널에서는 2017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통신사행록 가운데 하나인 『승사록』을 소개한다.

『승사록』(K.II-25)은 등재기록물 목록 가운데 한국 측(K) 여정의 기록(II) 25번에 자리한다. 잘 알려져 있듯, 여정의 기록에는 통신사에 참여한 사행원이 남긴 여행기록인 이른바 통신사행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승사록』은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이모저모를 담고 있는 통신사행록이다. 이번 사행은 에도막부江戶幕府의 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徳川家重(1711-1761)가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도쿠가와 이에하루徳川家治(1737-1786)가 습직한 뒤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사행이다. 저자 원중거元重擧(1719-1790)는 이 사행의 부사 이인배李仁培의 서기書記로 일본을 다녀와 그 견문을 낱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승사록』이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3권 4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12행 22자에 책의 크기는 24.4×16.5cm이다.

* 사진에서 보듯이 실제 소장본은 4권 5책으로 되어있다. 이 중 한 권은 원중거의 또 다른 기록인 『화국지』의 내용과 동일하여 권수에서 제외한다.

02



01, 02 원중거元重擧, 『승사록乘槎錄』
(고려대 도서관 육당문고 소장)



03 원증거元重舉 초상肖像, 『경개집 傾蓋集』(큐슈대 도서관 소장)

일본 학문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다

『승사록乘槎錄』에는 사행 여정을 날짜별로 자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1763년 7월 24일 영조 배알 뒤 8월 3일 발행하여 이듬해인 1764년 2월 16일 에도江戶 도착, 국서를 전달한 뒤 3월 11일 회정回程하여 7월 8일 경희궁에서 왕에게 복명하는 날까지 모두 332일 간의 여정이다. 이 책을 보면 원증거가 직접 견문한 일본의 문물과 산수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학문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 그 나라의 총명하고 민첩하며 예리한 재주꾼들이 이미 고문을 중국 음으로 읽고, 언어를 문장으로 서술하고, 사실로써 몸과 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에 말로 글을 엮고 글을 통해 도를 깨닫는 사람 가운데 오랑캐를 중화로 변화시키고 제나라를 노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어찌 알겠는가? 지금 나가사키에 책들이 날마다 이르고 나라 안의 문풍이 점점 융성해지니 만약 재기가 물경物卿(오규 소라이) 같은 사람이 나라 안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물경을 돌이켜 정도로 나아가갈 사람이다. 천지에 밝게 빛나는 기운이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융성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도道가 다시 동해를 건너갈까 저어하기도 한다. 아! 이 도는 우리가 독점하여 사사로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저들과 더불어 공유하더라도 무슨 상함이 있겠는가?

(『승사록』, 1764년 3월 10일)

에도시대 학문이 발전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학자가 바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1666~1728)다. 주자학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도론道論을 주장하여, 특히 조선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원증거도 “정주程朱를 비방하고 미친 듯이 패악스럽고 흉악하여 사리에 어그러짐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듯이 소라이학에 사뭇 비판적이다. 그러나 위의 대목은 소라이 비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거시적 시각에서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과 서양의 책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문풍이 융성해지는 나라였다. 비록 정도는 아니지만 소라이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면 소라이를 돌려세워 바른 길로 나아가갈 것이라는 말에서 일본 학문의 발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선의 도道를 공유케 한다면 해로움이 없다는 말도 비록 용하변이用夏變夷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지만, 일본의 학문이 융성하여 함께 조선이 일본과 도를 공유한다면, 조·일간의 관계에도 더없이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섞여 있다. 무사의 나라 일본에서 학문이 발전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보고 있음을 원증거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당대 조선의 일본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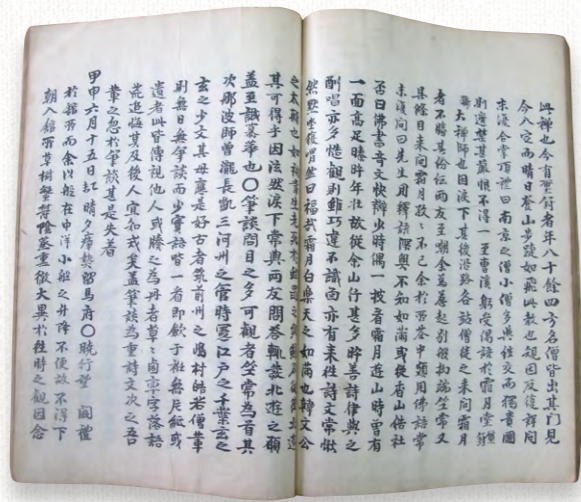
시문창화보다 필담을 중시하다

또한 원증거는 필담을 중시 여겼다. 그는 필담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승려들의 경우에는 하루도 논쟁의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참된 말이 있으면 모두 한 번 보고는 바로 옷깃에 넣었고 종잇조각 하나 남기지 않았다. 이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보여주거나 혹은 등사하여 책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바쁘고 허둥지둥 소홀히 하여 글자가 빠지고 말도 황당한 것이 있으니 후회가 막급하다. 나중에 사신으로 오는 사람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개 필담이 중요하고 시문은 그 다음이다. 우리 무리가 필담을 소홀히 하였던 것은 몹시 잘못된 것이다.

(『승사록』, 1764년 6월 14일)

시문창화는 직접 응대하는 자에게는 매우 힘든 노동임이 여러 사행록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지극히 의례적이며, 공허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반면 필담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담론의 장이다. 학문과 사상을 교류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조·일 문사 간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증거의 이 말은 통신사행에서 이루어진 시문창화에 대한 평가이며, 일본 문사와의 새로운 교류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그 이후 반세기 가까이 통신사행은 왕래하지 못하고, 대마도 역지사행을 끝으로 막을 내리지만, 오히려 연행에서 조청 문사의 필담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생각이 여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근거는 찾기 힘들지만, 교류관계에 있던 홍대용이 계미사행이 돌아온 이듬해 1765년 북경에 가서 항주의 세 선비와 필담을 나눈 것이 이후 조청 문사 교류의 물꼬를 튼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원증거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 니나 다를까, 홍대용이 남긴 『간정필담』에 원증거는 발문을 써서 중국 문사와 필담을 통한 교류를 높이 평가하였다.



04 원증거의 『승사록』 가운데 일부

통신사행을 총괄평가하고 개혁안을 제시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승사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따라간 사행의 수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록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승사록』의 말미에 별도로 지면을 할애하여 통신사행의 5가지 이로운 점, 3가지 폐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데, 회정에 올라 6월 13일 대마도에 도착하여 며칠 머무는 동안 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하고 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이로운 점

- 교린을 통해 변방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한다.
- 일본의 산천지세와 풍속을 알 수 있다.
- 대마도 왜구의 출몰을 방지한다.
- 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일본을 교화하여 예의로 이끌 수 있다.

❖ 폐단

- 수행 인원이 너무 많다.
- 장사치 역관의 권력이 너무 크다.
- 교역하는 물품이 쓸데없이 너무 많다.

(『승사록』, 1764년 6월 14일)

원증거는 사행에 대한 평가를 매우 포괄적,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개 사행록에서는 매 사건과 견문에 대한 기록에 부기하여 사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처럼 사행을 총괄적으로 진단하여 조목조목 서술한 경우는 드물다. 통신사행의 ‘이로운 점’이 일본에 사행을 보내는 근본 취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면, ‘폐단’은 사행이 왕래하는 동안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점을 잘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가는 인원이 한 번에 너무 많은데 이들은 ‘각종 청탁으로 끼어든 향심향

산恒心恒産도 없는 오합지졸이며, 일본에 가서도 여염집 사이에서 지내면서 사신의 위신을 해치니 이것이 큰 폐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역관은 본래 역할인 외교적 실무를 등한하고 오로지 '이익을 얻고자 평생 바라는 것이 한번 통신사 행차에 끼는 것'이라고 매섭게 비판하고, 특히 이들이 대마도인과 놀아나 통신사행에 막대한 폐해를 입힌다고 지적하였다. 이뿐 아니라 필요치 않은 물건을 지나치게 사들이고자 한 나머지 통신사행의 관소가 시장바닥이 되어버리니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하였다. 이 같은 분석 뒤 원증거는 통신사행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고 이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행 규모의 축소 조정

- 대마도인을 먼저 강호에 왕복하게 하여 절목을 더하거나 빼게 한다.
- 삼사신을 두 명으로 줄여야 한다.
- 수행원은 2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배를 타는 데 익숙한 사람만 총원해야 한다.
- 역관의 임무를 사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만 국한한다.
- 물화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사행인원의 선발

- 문사文士: 문재文才 가운데 몸가짐이 신중하고 관대하고 엄격한 이로 뽑아야 한다.
- 명무名武: 일본의 허실을 잘 살펴 훗날을 대비해야 할 인물로 뽑아야 한다.
- 역관譯官: 역관 중에서 지위와 명망 있는 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 양의良醫: 수창을 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원증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사행 규모의 축소이며 또 하나는 주요 사행원의 선발 방향에 대한 것이다. 삼사三使를 두 명으로 줄이고 수행 인원을 200명 안쪽으로 줄여 조선과 일본 양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그 다음 문사와 무관, 역관, 양의 등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잘 뽑아야 한다고 한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행의 수행원을 선발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개혁안이 의도하는 바는 사행의 본연의 임무인 외교적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자 한 것에 있다. 1607년 회답겸쇄환사 이후 한 세기 반이 지나는 동안 규례화 된 통신사의 원칙과 방향이 시대가 달라지며 새롭게 고쳐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이 글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곧 양국의 교린관계가 지속되려면 시대가 흐르고 두 나라의 형편도 달라졌으니, 그간의 통신사행을 총괄하여 평가한 뒤 새롭게 통신사행과 관련한 제반 규례와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조정에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조·일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정세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811년 대마도 역지빙례를 통해 원증거의 안이 일부 실현되었다. 그러니 그 현실 진단의 타당성과 방안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심층 진단하여, 새롭게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원증거의 개혁안이 뜻밖의 지혜를 제공할지도 모를 일이다.

乘槎錄



【참고문헌】

원증거, 김경숙 옮김, 『승사록-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정훈식, 『元重擧와 洪大容의 使行錄을 통해 본 18세기 사행록의 향방』, 『조선통신사연구』 7호, 조선통신사학회, 2008.
 이흥식, 『1763년 계미통신사의 일본 문화 인식 -현천玄川 원증거元重擧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41, 온지학회, 2014.
 이소연, 『원증거의 승사록乘槎錄 연구-논평부論評部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 논문, 2016.

수백 척의 선박과 막대한 경비를 들여 조선통신사행을 영접한 시모노세키下関를 찾아서

数百隻の船と膨大な経費をけて朝鮮通信使行を出迎えた下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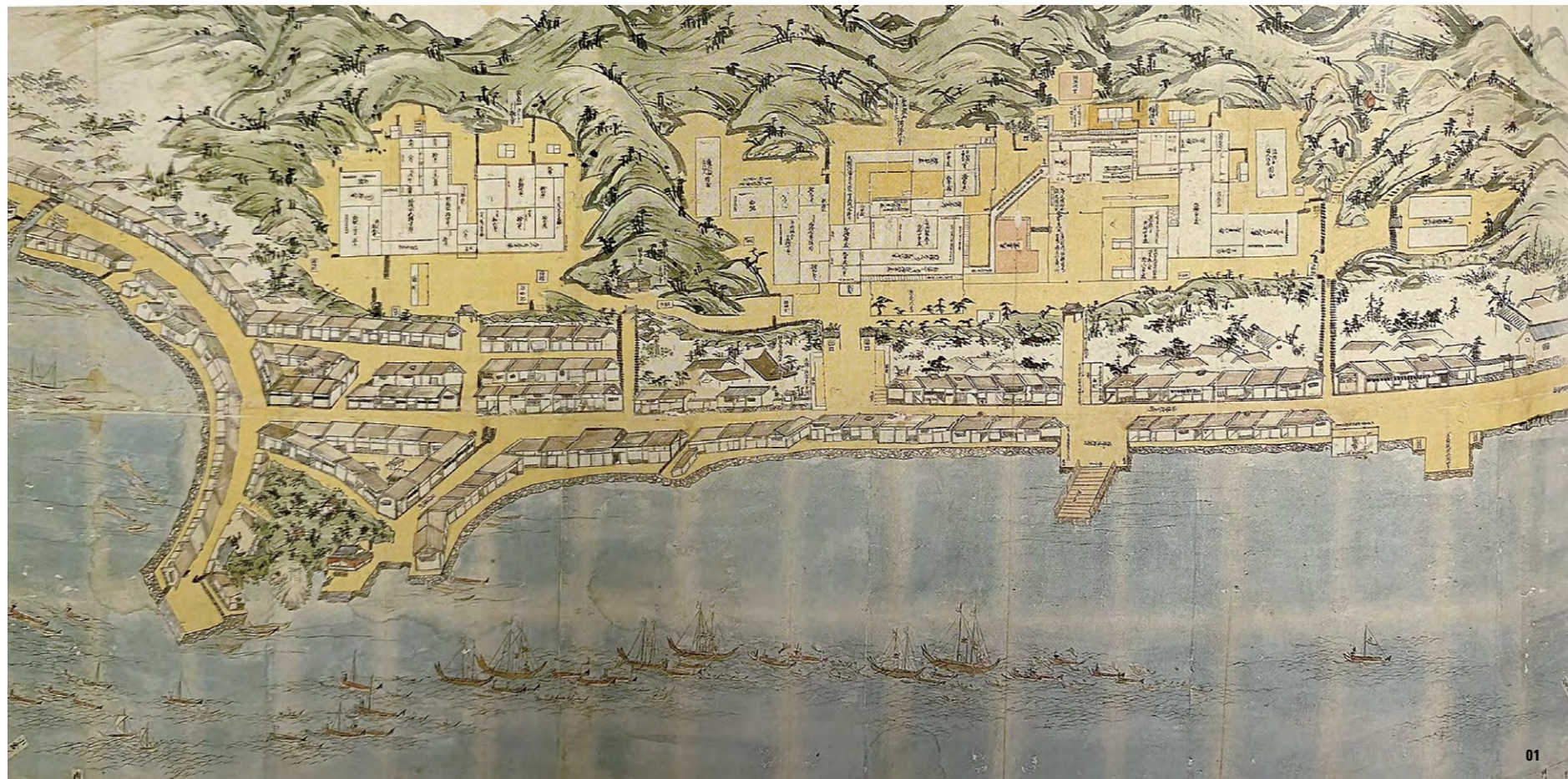
글_ 박화진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朴花珍 釜慶大學 史學科 教授

朝鮮通信使が經由する日本の4番目の地である下関(通称:赤間関)は、大韓海峡の荒波を切り抜け、初めて辿り着く日本本土の都市、日本の内海の起点である。下関に足を踏み入れた朝鮮通信使らにとって、商店街に並ぶ鮮やかな品物や華やかな庶民の服飾は深く印象に残った。下関を管轄する長州藩主の毛利家は、数百隻の船を動員して朝鮮通信使を出迎え、さらに通信使のための宿の新築、埠頭の修理、饗応を初めとする供え物など、毎回真心を尽くして持て成した。

조선통신사, 일본 본토를 처음으로 밟다

조선통신사의 일본 내 네 번째 경유지 시모노세키下関(일명 아카마가세키赤間関)는 일본 내양内洋으로서 대한해협의 거센 파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일본 본토의 도시였다. 시모노세키에 처음 발을 내디딘 조선통신사들은 거리 상점들의 찬란한 물건과 화려한 서민들의 복색에 매우 인상 깊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저물녘에 앞 만灣에 도착하였는데 만의 제방이 심히 웅장하였다. (중략) 사관은 새로 지은 것인데 남도의 것보다는 조금 좁게 보였다. 정묘한 것은 나은 것 같았다. 금 병풍, 비단 장막에 푸른 모기장이요, 마루에는 붉은 담요를 깔고 구리쇠 협궤으로 눌렀으니 그 사치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양쪽 언덕에 주민이 수천 호 사는데, 관광하는 남녀의 복색이 또한 화려했고 거리의 상점에 찬란한 물건들이 눈에 가득하니 또한 해문海門의 한 도회였다.” (1719년 8월 18일, 신유한 『해유록』)



01

01 시모노세키 조선통신사 객관 - 「아카마가세키 신사옥 근변도」
출처 :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56

<표 1> 조선 후기 통신사행의 시모노세키 체재 일수

1607	1차	체재 일수(4) 3.23 묘시(6시) : 아이노시마 출발, 시모노세키 도착 3.27 아침 :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海槎錄(慶運)
1617	2차	체재 일수(6) 8.4 진시 초(7시) : 아이노시마 출발, 미시 말 ~ 신시(15시 전후) : 시모노세키 도착 8.10 조식 후 :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東槎上日錄(吳允謙) 扶桑錄(李景稷)
1624	3차	체재 일수(1) 11.2 아침 : 아이노시마 출발, 신시(16시) : 시모노세키 도착 11.3 조식 후 :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東槎錄(姜弘重)
1636	4차	체재 일수(1) 10.29 진시(8시) : 아이노시마 출발, 신시 말(17시) : 시모노세키 도착 11.1 새벽 :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海槎錄(金世濂) 東槎錄(黃床)
1643	5차	체재 일수(5) 5.19 아침 : 아이노시마 출발, 포시(15시 30분~16시 30분) : 시모노세키 도착 5.24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癸未東槎日記(미상)
1655	6차	체재 일수(11) 8.4 묘시(6시) : 아이노시마 출발, 신시(16시) : 시모노세키 도착 8.15(?)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扶桑錄(南龍翼)

1682	7차	체재 일수(5) 7.10 아침 : 아이노시마 출발, 3~4경(23~3시) : 시모노세키 도착 7.15 사시(10시) :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東槎錄(洪禹載), 東槎日錄(金指南)
1711	8차	체재 일수(1) 8.29 여명 : 地島 출발, 시모노세키 도착 (8.26 인시 초(3시 경) : 아이노시마 발, 저녁 : 地島 착) 9.1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東槎日記(任守幹)
1719	9차	체재 일수(6) 8.18 새벽 : 地島 출발, 저물녘 : 시모노세키 도착 (8.10 새벽 : 아이노시마 출발, 밤 : 地島 도착, 8.17까지 체재함) 8.24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海游錄(申維翰), 海槎日記(洪致中)
1748	10차	체재 일수(2) 4.5 사시(오전 10시)경 : 아이노시마 출발, 미시(14시) : 시모노세키 도착 4.7 신시(16시)경 :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奉事日本時見聞錄 (曹命采)
1763 ~1764	11차	체재 일수(5) 12.27 조식 후 : 南泊 출발, 시모노세키 도착 (12.26 진시(8시) : 아이노시마 출발, 2경(21~23시) 南泊에서 배 위에서 유숙함) 1764.1.2 인시(4시) : 시모노세키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海槎日記(趙曦)

시모노세키 영주 죠수번 長州藩 모리씨 毛利氏는 수백 척의 배를 동원하여 조선통신사 선박을 영접하고, 나아가 매회 통신사 숙소 신축과 부두 보수, 향응을 비롯한 지공 등에 정성을 다하여 매우 넉넉하게 접대하였다. 이에 조선통신사들이 좀 더 머물고 싶어 하는 인기 장소 중의 하나였다.

“저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색을 살펴보면, 다 이곳에 머물면서 설歲時을 지나려 하니, 관사가 굉장할宏闊하고 지공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사신은 여기에 구애될 것이 없이 내양에 들어온 뒤부터 날마다 행선하려 하였으나 오늘 저녁은 비가 쏟아 바람이 거슬러 불어 형세가 행선할 수 없으니, 정히 이른바 백성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 반드시 좃는다는 것이다.” (1763년 12월 28일, 조엄 『해사일기』)

통신사행의 시모노세키 체재 일수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짧으면 1~2일, 길면 4~6일로서 대한해협 상의 경유지 이키 섬이나 아이노시마(9일 이상 체재가 많음)에 비해 매우 단축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1일 체재(제6차, 1682년)가 있으나, 이는 기후와 풍향의 영향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죠수번의 접대

37만 석 죠수번 長州藩은 조선통신사 선박 영접을 위해 시모노세키 항구 입구에서 수백 척의 배를 동원하여 대기하고 영접하였으며, 매회 객관 신축, 부두 보수, 향응, 지공(식재료 제공) 등에 막대한 경비를 지불했다.

02



• 색지

• 버루·황모필·진묵



• 부채

• 차

• 목록



• 흑마포

예를 들어 제8차(1711년, 정덕원년正德元年) 신묘 조선 통신사행 접대 경비에 대해 살펴보면, 8월 29일 도착 하여 하룻밤을 숙박하고 다음날(9월 1일) 출발하였는데 이때 동원된 죠수번 내 인원이 총 4,529명, 선박은 총 803척이었다. 지공支供(필요한 물품 등을 줌) 또한 방대하였다. 백미 104석 7두, 조미료(된장 19석 6두 6승 8홉, 간장 8석 2두 6승 3홉, 식초 5석 5두 6홉, 소금 8석 5두 8승 5홉 5작, 참기름 4석 7두 4홉), 기호품(술 34석 4두 2승, 담배 89貫 960匆), 차 131개, 어류(도미 597척隻, 생 작은 도미 491척隻, 생 방어 137척隻, 생 송어 1,656척隻, 절인 도미 3,568매, 김 91把, 절인 작은 도미 1,461매, 오징어 261매, 해삼 195꼬치, 가쓰오부시 1,172절節, 말린 대구 120매, 생

02 정덕원년 조선통신사 진물 및 진물 목록
- 아마구치현립 아마구치박물관 소장
출처 :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p.164~165

전복 555盞), 조류(닭 478마리, 달걀 636개, 꿩 60마리), 육류(돼지 5근, 사슴 1근, 토끼 7마리), 야채류(무 7,688개, 우엉 3,678개, 파根深 1,273把, 가지 1,052개, 당근 3,343개, 마 116개, 토란 5석 9두 7승 4홉, 방풍 112과, 묘가 2승 6홉, 마늘 916과, 순무 204과, 생강 1두 2승, 잎 생강 106과, 부추 95과, 버섯 2두 4승), 과일(큰 밤 544개, 작은 밤 4두 3승, 밀감九年母 552개, 감 132개, 귤감 270曲, 산수유 열매唐菜黃 100개, 유자 190개), 가공품(두부 375모), 과자(마른 과자 14斤 반 및 80曲), 기타(떨감 3,035把, 숯 770俵)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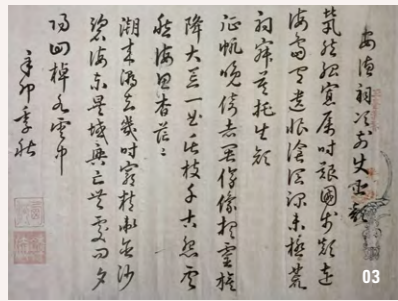
죠수번의 이러한 융성한 접대는 통신사들은 물론이고 쓰시마번주 소 요시미치宗義方등에게 매우 높이 평가되어 “나가토 시모노세키의 대접이 최고이다長門下之関御馳走一番”이라고 막부에 보고될 정도였다. 그리하여 신묘 조선통신사는 감사의 뜻으로 죠수번주 모리 요시모토毛利吉元(1677-1731, 죠수번 제5대 번주)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 목록과 선물들이 아마구치현립 아마구치박물관의 중요문화재로 잘 보존되어 있다.

동사일록, 해사일기 속의 시모노세키

“황혼이 된 뒤에 장차 적간관赤間關 10리쯤 가까워지자 구름 속에 있던 달이 조금 밝아지면서 바다 하늘이 멀고 넓어진다. **마중하는 왜선(倭船)들이 무려 수백 척이나 된다.** 전후 좌우에서 일시에 등불을 켜고 멀리 바다 가운데 덮여있어서 찬란하기가 마치 많은 별들이 벌려 있는 것 같다. 점점 배에 가까워지자 환하기가 마치 대낮에 등불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참으로 장관壯觀이었다.” (1682년 7월 10일, 김지남 『동사일록』)

“땅은 장문주長門州에 속하는데, **여기서부터 내양(內洋)이니, 실로 해문(海門)이 관방(關防)이 되기 때문에 하관(下關)이라고 일컬으며,** 여기서 3백 50리 떨어진 지점에 상관(上關)이 있다고 한다. 모두 수로의 요충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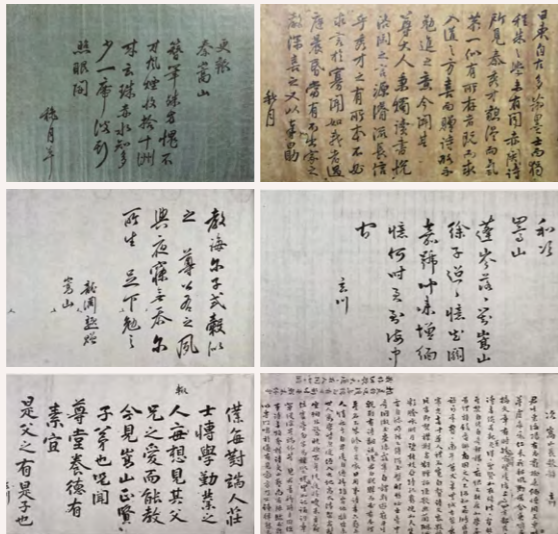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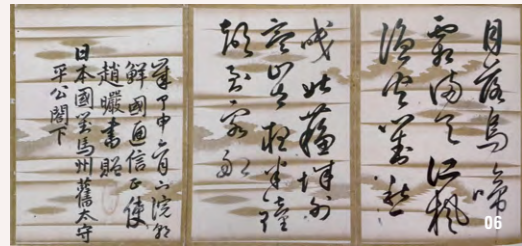
포구 4~5리 지점에서 관소에 이르기까지의 원편 해안에 민가가 서로 잇대어 있고 사방의 장사배가 모두 모여들어 자못 우리나라의 용산, 마포와 같았으나, 집들의 화려함과 화초의 우거짐은 한층 훌륭하니, 족히 ‘좋은 강산’이라고 할만하다. 관사는 아미타사阿彌陀寺의 곁에 새로 지었는데, 광활하고 헌창하여 남도보다 더욱 훌륭하였다.” (1763년 12월 27일, 趙曦 『海槎日記』)



03 「통신부사 임수간 단노우라 회고시
通信副使任守幹浦懷古詩」
출처: 부산박물관,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p.86, 2018.

04 「습득도拾得圖」 - 김명국
출처: 부산박물관,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p.73, 2018.

05 「연향 오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
延享五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圖」
출처: 부산박물관,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pp.70~71, 2018.



06 「보력14년 통신사 정사 조엄 서첩
寶曆十四年通信使正使趙翬書帖」
출처: 부산박물관,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p.74, 2018.

07 「파전송산 조선통신사 창수시병필어
波田嵩山朝鮮通信使唱酬詩並筆語」
출처: 부산박물관,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p.75, 2018.

시모노세키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료

현재 시모노세키에 존재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자료는 5건 10점이 있다. 아카마진구赤間神宮(아미다사阿彌陀寺를 계승함)에 1건 1점, 시모노세키시립 역사박물관에 4건 9점이 소장되어 있다. 아카마진구赤間神宮의 소장 1건 1점은 신묘 조선통신사행(1711)의 부사 임수간任守幹이 지은 「단노우라 회고시壇の浦懷古詩」이다. 시모노세키시립 역사박물관 소장의 4건 9점은, 「김명국 필 습득도」 1건 1점(17세기), 「연향 오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延享五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圖」 1건 1점(1748년), 「보력14년 통신사 정사 조엄 서첩寶曆十四年通信使正使趙翬書帖」 1건 1점, 「파전송산 조선통신사 창수시병필어波田嵩山朝鮮通信使唱酬詩並筆語」 1건 6점이다.



08 조선통신사 시모노세키 객관 유적지 아카마진구
출처: 부산박물관,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p.85, 2018.

09 조선통신사 시모노세키 상륙 기념유적지

시모노세키下關의 조선통신사 유적지를 찾아가는 길은 역사 문화 탐방과 더불어, 다양한 멋거리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다고 생각 하는 바이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한일 양국의 왕래가 힘든 시기이나, 향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 때 반드시 한번은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 한다. 아카마진구(아미다사)는 옛날 일본 고대 안덕천황 관련 역사 유적지로 유명하며 또한 일본 근세시대

조선통신사 객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지금은 아미다사 공원 일각에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시모노세키는 예부터 일본의 대표적 항구도시이자 수산도시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히 가라토唐戶시장은 각종 수산물을 파는 시장으로 주말(금~일요일)에는 싱싱한 복어 도매시장과 스시 배틀이 열려 싱싱한 초밥을 맛볼 수도 있어 여행객들에게는 인기 있는 핫 플레이스 중의 하나이다.

아카마진구로 가는 길

- ① JR 산요혼센山陽本線 시모노세키 역下関駅から 버스로 10분 정도 이동
- ② JR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 신시모노세키 역新下関駅から 버스로 30분 정도 이동
- ③ 승용차로 직접 이동 시 주구쿠자자동차도中国自動車道を 이용하여 시모노세키下関 IC에서 13분 정도 소요

시모노세키시립 역사박물관으로 가는 길

- ① JR 시모노세키 역下関駅から 버스로 25분 정도 이동
- ② JR 신시모노세키 역新下関駅から 버스로 20분 정도 이동
- ③ JR 조후역長府駅から 버스로 10분 정도 이동
- ④ 승용차로 직접 이동 시 시모노세키下関 IC에서 15~20분 정도 소요



닮은 듯 다른 한일 유통, '진화와 혁신의 시사점'

似ているようで異なる韓日の流通、'進化と革新による示唆'



글_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田英洙 漢陽大學 國際學院 教授

韓日兩國の流通構造は、似ているようで異なる。日本は、巨大な内需を基盤にして、流通市場の大きさから運営の主体まで、その形態は様々である。限られた市場の中で、資本が激しく競争する韓国とは状況が異なる。飽和論を乗り越えたばかりの日本コンビニの変身と進化は、顧客分析と差別化へのユニークな着眼から始まった。潜在的な顧客グループを徹底に分析した上で商品の陳列や提供サービスを変えるという、「人」中心のビジネスへ事業モデルを転換したからである。高齢化により移動販売車や出前、デリバリーサービスも高度化される。商店街が崩壊した韓国と違って、コンビニと割引店の間で健在するスーパーマーケットのパワーも強い。生協組織拡張への勢いも著しい。これから日本の生協は、競争者である民間の営利業者と向き合っており、生き残るほどの底力や革新を図る。それでも発生する人口過少地域の買い物難民のために、新しい流通主体としての休憩施設(SA/サービスエリア)が台頭する。それは地方を生き返らせる拠点でありながら、新しい再生モデルの中心地として頭角を現し、人と資本を包括する有力な新流通の強者として突出する。

🚗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유통시장

한일은 닮았으며 남다르다. 유사한 발전경로를 걷는 근린국가이지만 뜯어보면 차별점이 더 많다. 해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논리도 신중한 편이 좋다. 한일간의 유통 현장도 닮아있는 동시에 차별화된 요소가 많다. 당장 수급을 결정짓는 시장 덩치가 천양지차다. GDP가 대략 3배 정도 벌어지는데, 이를 구성하는 수출·내수 비중도 꽤 다르다. 2019년 한국의 GDP(1조 6,422억 달러)는 일본(5조 818억 달러)의 1/3보다 낮다. 이 중 일본은 내수가 85%를 차지한다. 내수는 결국 도소매 유통시장과 직결된다. 반면 한국은 내수가 62%에 머물며 (1996~2015년 평균), 이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즉 일본의 유통시장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크기에 이와 관련된 시장조성·수급환경도 비례해 무궁무진하다.

01 일본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최적화된 편의점



02

02 일본 대형 편의점 중 하나인 로손
03 세븐일레븐 편의점 지방 점포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유통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으나, 우선 최종적인 소매 현장인 가계부문의 특수한 거주환경에서 원인이 찾아진다. 일본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 일변도의 한국과 달리 단독주택이 압도적이다. 문제는 단독주택의 크기가 작다는 데 있다. 1979년 EC위원회가 일본의 특징으로 '위커홀릭'과 함께 '토끼집(ウサギ小屋)'을 거론했을 정도다. 성냥갑이나 종이집이니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피라미드식 유통구조가 정착된 것도 토끼집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걸 수납해야 하는 공간 특징 때문이다. 여기에 사계절이 있으니 필요 물품도 늘어나 수납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동서양 모두를 아우르는 생활양식도 좁은 공간에 많은 물건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수납·정리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종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교적 넓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때문에 물건을 여유롭게 쟁여놓고 생활하기란 어렵다. 그때그때 필요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귀찮긴 해도 공간 활용엔 우호적이다. 교외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에서 1~2주일씩의 생필품을 차로 운반·축적해두는 서구식의 소매유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신 생활 주변의 골목상권이 상대적으로 견재한 편이다. 한국에선 거의 사라진 동네 슈퍼마켓이 과거보다 힘을 잃긴 했어도 굳건히 소매 현장의 한 축을 도맡는다. 역세권의 백화점 및 생활공간 곳곳의 편의점과 함께 생필품 구매 루트로 안착했다. 편의점도 변신을 받

복하는데, 공산품의 편리한 판매 공간에서 탈피해 생활 전반의 전체 이슈를 커버하는 식으로 진화한다. 입지별 고객 특성을 반영해 상품 구색과 부가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며, 유통 현장의 강자답게 백화점에 이어 10조 엔대의 시장규모를 자랑한다.

스토리 판매로 '사람 사업' 지향

한국 유통이 일본을 따라간다면 가장 유력한 변신 포인트는 '접객 서비스'로 요약된다.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생활과 스토리를 판다는 이미지로의 변화다. 골목상권이 피폐화된 한국으로서는 분석대상일 수밖에 없다. 역시 선두주자는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일찌감치 상품 배달부터 행정기능까지 '사람사업(Human Business)'을 지향한다. 대화공간을 만들고 화장실은 24시간 오픈이다. 소극적인 집객과 통상의 상품 진열로는 매출 증진이 어려워진다. 새로움을 위한 이종(異種)업계와의 연대·제휴는 당연하다. PB(Private Brand) 강화도 업계 상식이다. 세븐일레븐(세븐프리미엄)을 필두로 로손(로손시렉트), 패밀리마트(패밀리마트컬렉션) 등 고유한 PB가 굳건하다. PB에의 러브콜은 원가 대비 수익비율이 탄탄해서다. 라인업은 강화 추세다. 디저트는 물론 반찬·야채 등에까지 진출한다. 최근엔 행정·금융·공유서비스는 물론 노래방·약국·피트니스센터 등 병설 점포 형태까지 생겨난다.

지역 특징에 최적화된 유통 채널

일본 유통의 특징 중 또 다른 포인트는 생협(생활협동조합) 조직의 파워다. '생협 천국'이란 말처럼 생활클럽연합회(生活クラブ), 코프미라이(コプみらい), 팔시스템(パルシステム) 등 다양한 생협이 활동한다. 가격은 높아도 친환경 품질을 내세워 시장경쟁자를 위협하는 선까지 성장했다.



‘소비=생산’을 아우르며 스스로 필요한 걸 만들고 판매한다. 곧 소비를 바꿔 사회를 바꾼다는 소비 혁명을 주창한다. 가족 먹거리의 안전·안심을 챙기려는 주부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초고령사회에 힘입어 노년 독신 고객그룹에게도 든든한 생활지원군이다. 덕분에 일본 생협은 969개 조합에 6,783만 명의 조합원을 자랑한다(후생노동성, 2016년). 여기엔 공제사업뿐 아니라 의료 생협 등 다양한 라인업이 포진한다. 생협의 취급 대상만으로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다. 이들은 이윤 추구가 아닌 생필품의 소비 가치를 강조한다. ‘조합원=소비자=생산자’의 등식도 재미나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신해 소비 시선에 맞춘 유통·판매혁신을 실천한다. 공동출자로 도시락, 리사이클, 탁아, 배송 등으로의 진출이 대표적이다. 주부, 엄마 등 여성 고유의 직감이 사업화의 원동력이라 사업영역은 확장세다.

그럼에도 지방권역은 기존 유통이 상당 부분 붕괴됐다. 고령화로 과소마을이 늘면서 기존 점포의 폐점이 반복된다. 돈이 있어도 생활필수품을 필요할 때 못 사는 구매 난민이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도쿄의 신도시조차 유명마을처럼 전략해 유통망이 사라진 곳이 적잖다. 그래서 등장한 게 공공성과 사회공헌이 겸비된 형태의 유통망인 배달 확대다. 고령사회답게 구매 난민을 위한 이동 판매차가 대표적이다. 일상품을 실어 한계 취락을 방문하는 구조다. 도시락·반찬도 유기농부터 환자식까지 다종다양하다. 서비스·상품의 연결지점은 ‘미니슈퍼’로 정리된다. 작은 슈퍼마켓을 노린 상품 세분화다. 홋카이도의 지역 편의점인 ‘세이코마트’는 아예 타산이 맞지 않는 과소지역에 의도적으로 진출하는 승부수까지 띄웠다. 철저한 채산성의 검토와 공공과의 연대로 과소지역의 구매 난민을 타깃으로 한 경우다. 염려와 달리 차별화된 고객 분석·차별서비스는 되레 흑자로 되돌아왔다.

04 지방에 특화된 야마자키 편의점



05 야마구치시 외곽에 위치한 니호 휴게소

새로운 대안, 지방 휴게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게 지방 휴게소다. 일본 전역의 휴게소는 최근 남다른 유통채널로 안착 중이다. 일반도로변에 위치해 차별적인 상품·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생활거점은 물론 외지 관광객의 주요 목적지로 변신했다. 사람·물건의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공동 공간으로 휴게소가 지목될 정도다. 과소지방을 되살려 돈과 사람·정보가 흐르는 관문으로 활용하는 차원이다. 휴게기능을 위주로 민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휴게(Refresh)’, ‘지역 연계(Community)’, ‘정보 발신(Information)’의 3대 기능이 고수·강조된다. 즉 ‘모객 증가→매출 증대→지속 고용→소득 증진→역내 소비’의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도 개입보단 응원이다. 재정 절감·자활거점의 일석이조는 영리구조가 동반될 때 가능해서다. 지방 소멸의 속도·범위가 더 가파른 한국으로서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01

만화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漫画を通しての韓日文化交流



글_ 남정훈 웹툰 작가, 다나카 토키히코 기타큐슈시 만화 뮤지엄 관장
南鉦勳 ウェブトゥーン作家、田中時彦 北九州市漫画ミュージアム館長

財団法人釜山情報産業振興院と北九州市漫画ミュージアムは、去る2018年に韓日漫画コンテンツ産業の活性化を図る協定を結んだ。この交流事業の一環として、2019年7月に開催された釜山ウェブトゥーンフェスティバルと11月に開催された北九州国際漫画祭の期間中に、韓日両国の作家により、住み慣れた自分の都市の路地裏を相手が描くというプロジェクトが行われました。釜山で活動するウェブトゥーン作家の南鉦勳氏と北九州市の漫画ミュージアム館長の田中時彦氏がこのプロジェクトの柱となった。南鉦勳氏は北九州の旦過市場を、田中時彦氏は釜山の宝水洞古本屋街を背景とする作品を描き、大きな話題となった。漫画を通して文化交流を繋いだ二人の作家の話を聞いてみよう。



1 남정훈 작가는 일본과, 다나카 관장님은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서로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남정훈 생각해보면 만화가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수입 일본 만화서적을 구하기 위해 보수동 책방 골목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웹툰이 나오기 이전의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진 작가들은 대부분 일본 만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꿈을 키웠으니까요. 후쿠오카, 기타큐슈의 만화작가님들과 교류하면서 만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다나카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11월, 부산에서 10명 남짓의 만화가가 저희 만화 뮤지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급히 기타큐슈의 만화가를 불러 모아 교류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작가들은 작품의 구성 및 작화의 기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밤에는 기타큐슈 시내의 주점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선, 만화라는 세계 공통어로 말이죠. 만화를 술안주로 삼은 그날의 교류는 깊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말부터, 본 뮤지엄에서는 「부산 만화가 작품전」을 개최했고, 이는 부산의 만화가가 매년 기타큐슈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기타큐슈 국제만화전」에서도 부산 만화작품을 전시했고, 부산 만화가가 한국의 웹툰에 대해 강연하는 부대행사도 가졌습니다. 2017년에는 기타큐슈의 만화가가 「제1회 부산웹툰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작품을 전시했고, 양국 만화가의 토크쇼가 개최된 이래, 매년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참가하고 있습니다.

01 다나카 토키히코 작
'부산의 거리를 그리다 2'
©Tanaka Tokihiko

02 기타큐슈-부산 만화가 교류회
©Tanaka Tokihi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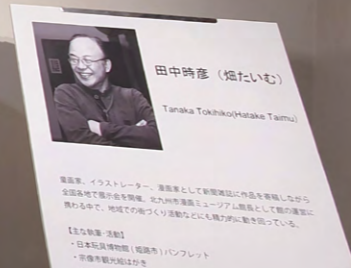
03 부산웹툰페스티벌 전시
©Tanaka Tokihiko



田中時彦 (畑たいむ)
Tanaka Tokihiko/Tarake Taimu
宝水洞古書店街
ナムさんともじ



田中時彦 (畑たいむ)
Tanaka Tokihiko/Tarake Taimu
宝水洞古書店街



04



05



06

2018년 9월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본 기타큐슈시 만화 뮤지엄이 한일 만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정서(MOU)를 체결해, 만화를 통한 문화교류가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MOU 체결 이후 첫 사업으로 진행된 2019년 「부산브랜드 웹툰」 프로젝트를 통해, 기타큐슈의 젊은 만화작가가 부산을 여행하고 부산을 소재로 한 단편 만화를 출판했습니다. 부산 만화가 남정훈 씨는 일본 젊은 만화작가들을 직접 지도하여 첫 웹툰 작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기타큐슈 국제만화제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한일 젊은 만화가의 합동 작품전-부산 스토리’로 공개했고, 양국 만화문화의 특징과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일 젊은 만화가 토크쇼’에도 많은 관람객이 참석해 경청해 주셨습니다. 향후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세가 진정되면, 이번에는 부산의 젊은 만화가가 기타큐슈시를 여행하여, 만화를 그리는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04, 05 2019 기타큐슈 국제만화제 전시 작품 ©남정훈

06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 ©남정훈

2 일본과 한국의 만화가께서 함께 부산과 기타큐슈의 소멸되어 가는 도시를 그려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다나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타큐슈시에서 마련된 한일 만화가 교류회에 남정훈 만화가와 제(다나카田中)가 참석을 했었고 저녁 술자리에서 그는 부산의, 저는 기타큐슈의 오래된 도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서로가 사는 도시의 거리 풍경을 그려서 독자들에게 선보이면 좋겠네요.”라며 완전히 의기투합한 저희는 헤어지면서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홍순면 씨가 살을 붙여서 한국 TV 방송국 관계자에게 소개했고, 한국과 일본의 만화가가 부산을 그린다는 기획안이 통과되어 2019년 MBC ‘부산을 그리다’라는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한일 만화가 교류로써 한국 방송국의 보도 양상에 관심을 보이며 취재하였습니다. 이후 TV 프로그램과 뉴스로 크게 보도되어 양국의 방송국들이 재차 동행 취재하는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적 틀을 뛰어넘는 훈훈한 화제거리로 주목받은 일이라 특별히 생각합니다. 이때 그린 작품은 2019년 ‘제3회 부산웹툰페스티벌’에 먼저 소개되었고, 같은 해 ‘기타큐슈 국제만화제’에서 원화가 전시되었습니다. 남 작가의

작품은 '타임 랩스(Time Lapse)'라는 태블릿으로 만화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방법이라 관객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갔고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쓰는 분이 바로 한일의 가교 역할을 한 홍순면 씨였습니다.

남정훈 4년 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기타큐슈에서 일본 만화작가님들과 교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타큐슈 만화박물관의 다나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이 일본의 사라져가는 골목길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웹툰 작업 외에 부산의 한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부산 문화사적, 공정 마을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삽화를 그리고 있었던 때라 선생님께선 우리가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교류전과 함께 공동 전시를 제안하셨지만 저는 그때 준비된 게 별로 없었기에 정중하게 제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저는 본업인 웹툰 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다나카 선생님과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타큐슈와 부산의 골목을 그리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선생님이 부산의 골목길을 그리고 제가 기타큐슈의 골목을 그리는 프로젝트로 발전했고,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질 만큼 양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서로 간의 교류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남정훈 작년 이맘때쯤 다나카 선생님의 아틀리에를 방문했던 일과 일본의 골목을 그리기 위해 탄가시장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보수동 작업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선생님의 아틀리에로 찾아갔었는데,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일본식 목조주택의 작업실 외관에 감탄했고 친구분과 직접 아틀리에를 만드셨다는 건 더 놀라웠습니다. 그곳은 그림 작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문화센터처럼 주민들과 공유하는 전시, 체험활동, 그림 교실, 가미시바이(그림연극) 등 소규모 문화행사도 열리는 공간이라 부러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근처 오래된 골목을 저와 함께 걸으며 소개해 주셨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탄가시장은 시장 내 '대학당'이라는 곳에서 밥과 국을 산 다음 시장을 돌아다니며 먹고 싶은 반찬을 구입해 밥 위에 올려 다시 대학당에서 먹는 시스템인데, 밥그릇을 들고 명란과 무, 고등어조림을 사기 위해 함께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 추억을 되살려 스토리가 있는 저만의 타임랩스 기법으로 그림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다나카 선생님이 부산의 골목길을 그리기 위해 보수동에 왔을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글로 된 티셔츠를 일본에서 사서 입고 오셨는데 의미 없는 단어로 조합된 이상한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이란 것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지요. 무의미한 한글이 저에겐 어떤 교류의 의미보다 더 크게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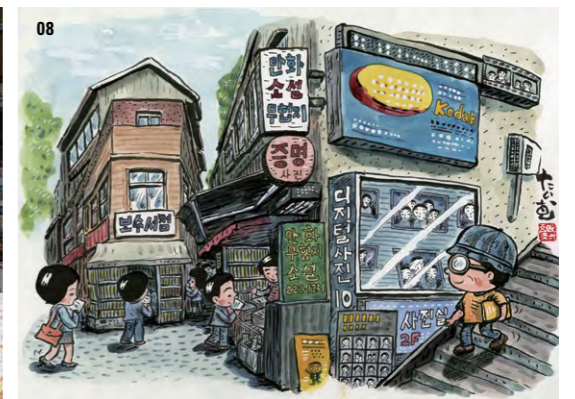
다나카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에 있는 작은 도넛 가게에 남 작가와 같이 갔을 때였어요. 남 작가가 그 도넛 가게에서 일어났던 실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막 튀겨서 나온 도넛이 너무 맛있어서 한입, 두 입 먹다 보니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나 남작가는 도넛을 먹는데 열중한 나머지 어렵게 구한 고서적을 도넛 가게에 몽땅 두고 집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도넛을 먹을 때 '물건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 작가가 일본에 왔을 때인데요, 제가 감기에 걸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회복하라'며 인삼이 든 과자를 선물로 가져다 준 것도 기억에 남네요.

그해 12월 초순에는 부산웹툰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부산을 방문하였는데, 남 작가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만화가가 함께 부산 거리를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특히 제가 추위를 심하게 타는 것처럼 보였는지, 통역을 맡은 홍순면 씨가 자기 털모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따뜻한 친절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07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취재 ©Tanaka Tokihiko

08 다나카 토키히코 작 '부산의 거리를 그리다 1' ©Tanaka Tokihiko





09 기타큐슈 국제만화제 ©Tanaka Tokihiko

4 만화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나카 만화는 고독한 작업으로 탄생하는 창작물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것은 만화가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시야를 바꿈으로써 커다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여러가지 분야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히 만화는 세계 공통어로, 어느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구로써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화의 표현 방법은 나라마다 다양하여 그 나라의 풍토와 생활, 문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며, 각양각색의 선택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작가에게 있어 '만화'라는 자신의 창작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은 필요 불가결하며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류를 통해 작품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면, 이는 또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이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시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작품 구성뿐만이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시야로 이국의 문화를 접하고, 알지 못했던 문화를 배우고 사람을 사귀는 과정을 창작의 영양제로 작품에 살릴 수 있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를 통해 즐거움과 삶의 보람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지요.

남정훈 '부산웹툰페스티벌'을 통해 전시된 '기억 속의 거리'는 부산의 골목길이 기타큐슈의 골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진 콘텐츠였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한국과 일본의 방송 소개는 물론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되면서 두 도시의 도시재생에 관한 문제로까지 생각하는 계기로 발전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교류하고 소통한다면 더 풍부하고 좋은 의미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경색되어가는 한일관계 속에서 문화교류를 이어가는 사람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남정훈 저는 정치·경제적으로 많이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를 문화인들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계의 문화교류를 통해 더 많이 가까워지고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에게 관심이 저절로 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이해를 하게 되지요.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처럼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습니다. 저같이 만화 그리는 사람은 만화로, 요리는 음식으로, 영화인은 영화로 가까워져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며 예술가의 문화교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나카 '평화가 있어 문화가 있다.' 문화가 있어서 평화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는 성장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대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도 만물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현재, 부산의 만화작가들과 교류를 통해 깊은 신뢰를 쌓고, 우정을 키워가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나라에 새로운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만화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습니다. 서로 함께 힘냅시다!



조선통신사 뱃길 탐방 〈배 타러 가자〉 후일담

朝鮮通信使の船路探訪〈朝鮮通信使船に乗ってみませんか〉余話

글_ 참여 시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통신사선 운항 관계자
イベント参加市民、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 朝鮮通信使船運航関係者

釜山文化財団と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は、去る2020年7月24日から26日までイベントを共同で行った。イベントの内容は釜山市民を対象に、通信使が通った船路を探訪する〈朝鮮通信使船に乗ってみませんか〉というイベントだった。当時は例外的に長引いた梅雨の影響で、イベントの前日も豪雨が降り、気象や海上の状況把握が容易ではなかった。計8回を予定していた通信使船の運行のうち、運航取り消しや時間短縮したこともありながら、その他は参加した多くの市民たちの熱い反響のもと、本行事と付随イベント共に盛況里に終了した。当時、イベントに参加した市民と通信使船を運行した実務陣の話を聞いてみよう。



조선통신사 뱃길 탐방 〈배 타러 가자〉

참여 시민들의 말, 말, 말!

Q. 〈배 타러 가자〉 행사에 직접 참여하신 시민으로서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세요.

유정훈 가족
_ 참여 시민

7월 24일 오후 승선한 가족입니다. 승선 체험 신청일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겨우 등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작 후 5분 만에 마감이 됐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선 확정 내용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승선 전 기념사진을 찍고 올라가는데 관계자분들이 조심하시라며 옆에서 도와주고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1층 내부에서 조선통신사선에 대해 설명하실 때 거의 사실적으로 재현된 배라는 점을 말씀해주셔서 '정말 그 당시의 배를 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에는 조선시대 각종 옷과 조선통신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계단을 통해 내려간 지하 1층에서는 조선통신사선을 재현하는 작업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를 다 보고 갑판으로 올라오니 바다가 펼쳐졌고, 광안대교를 눈앞에서 볼 수 있어 너무 신났어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대마도를 지나 일본 본토까지 가는 기분이 이랬을까요? 분명 이보다 더했겠죠. 그때는 수백 명이 같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그 옛날 선린의 뱃길을 연 그때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효운 부부
_ 참여 시민

7월 24일 오후에 승선한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3월부터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어 조선통신사 관련 이벤트를 신청했고 운 좋게 승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바람이 거센 날이어서 체험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행히 즐겁게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진과 안전요원의 안내가 너무나 친절했고, 예쁜 에코백과 부채까지 주셔서 좋았습니다. 승선 후에도 운영진의 질서 유지 노력으로 작은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이 체험 내내 호위해주어 경찰관분들과 손 인사도 짧게나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임진왜란 후 파견되었던 조선통신사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부산의 지리적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체험 시간이 조금 짧은 느낌이 들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마 너울이 높아 안전에 문제가 있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사를 해주신 부산문화재단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통신사에 대해 공부를 더 한 후 나중에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민정 가족
_참여 시민

7월 26일 오전 승선한 가족입니다. 기대했던 '조선통신사 뱃길 탐방 프로그램!' 예전부터 신청되길 기다렸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여 안전교육 후 밖으로 줄을 서서 나갔습니다. 우리를 맞이해준 승선 퍼레이드를 보니 조선시대로 소환되어 실제로 조선통신사 행렬에 참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배는 전통양식으로 흔히 보는 배가 아니라서 더 흥분되었습니다. 실내는 더 대박이었는데 지하 1층~지상 2층에 퍼즐 놀이, 복식 체험, 조선통신사 역사 등의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부산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승선 내내 울려 퍼졌던 국악은 바다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진행 선생님도 어찌나 입담이 좋으신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아끼고 알리고자 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후 가족
_참여 시민

7월 26일 오후 승선한 가족입니다. 작년에 승선 체험을 신청했었지만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어 너무 아쉬웠는데, 올해는 운 좋게 승선체험 기회를 획득했네요. 체험기간 내내 비오고 흐린 날씨 탓에 또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저희가 승선한 일요일 오후는 날씨가 화창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승선 30분 전 대기실에 도착해 안전교육이 끝난 후 선물로 에코백과 생수도 받았어요. 더운 날씨에 정말 시원한 물이 필요했는데 센스가 최고였습니다. 배에 올라타기 전 멋진 세리머니 연주와 함께 입장! 광안대교가 보이는 옹호만 부두에서 근사하고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조선통신사의 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발 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 오락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코로나19로 지친 삶이 힐링되고 너무 좋았네요. 행사 관계자분께서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소감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좋은 공연 보고 승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제 전하게 되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행사를 빛내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실무진들의 이야기

Q1. <배 타러 가자> 행사 주관을 위해 목표에서 부산으로 항해하여 올 때의 기분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순재 _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해무에 작은 섬들은 하늘에 구름처럼 덩실덩실 떠 있고, 저 멀리 수평선에 걸친 작은 섬은 우리의 목적지 부산 항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내린 빗줄기는 내 마음과 그대들, 그리고 통신사선의 마음처럼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한 아쉬움일까요... 성난 파도를 이겨가며 달리는 청룡은 뱃길을 안내하며 연신 바닷물을 삼키고 뱉어내더군요. 행여 긴 여정에 돌아올 길을 잃어버릴까 넓은 바다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정홍일 _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목포에서 부산으로 출항하기 전 기상이 좋지 않아 많이 걱정했고 항해 중에도 날씨가 좋아지지 않아 계속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가 통신사선을 타고 출항했던 부산에서 그들의 옛 뱃길을 재현하고 또한 부산지역민들과 행사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항했습니다.

황승민 _ 조선통신사선 기관장

행사 참여를 위해 1박 2일의 항해를 했습니다. 출발 당시부터의 굶은 날씨가 도착 때까지 괴롭혔지만, 코로나19로 지친 부산 시민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항해했습니다.

강원춘 _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부산으로 향했던 네 번의 여정 중 가장 기대가 컸던 항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였기에 조선통신사선과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고, 2019년 5월 조선통신사 축제 현장에서 느꼈던 모든 사람들의 흥겹고 열정적이었던 분위기가 다시금 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 선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척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안 흔들리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항해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좋은 사람들과 해후하고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서경호 _ 조선통신사선 선장

조선시대의 고선박을 복원해 통신사 역할을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라기에 책임감과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1박 2일의 여정에도 즐거웠고 행사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부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김대한 _ 조선통신사선 항해사

목선을 타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24시간의 항해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 거친 항해 때문에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더 크고 뿌듯했습니다.



Q2. 이번에 어렵게 준비한 행사가 기상 상황에 의해 많은 변수가 있었으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의 소감은 어떠했나요?

김병근 _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관, 운항 총괄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날씨가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배 타러 가자' 행사 후 목포에 복귀해서야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심술을 부려 행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선상에서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선박의 위용을 느끼는 것이 매우 보람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용필이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 속에 나오는 오륙도를 실견하며 쪽빛 바다와 함께 하는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통신사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박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일본을 향해 위풍당당하게 항해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홍순재 _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부산 용호만 부두에 다다르자 환영하며 반기는 내 벗들의 미소가 험난했던 항해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열망하듯 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마음과 모습이지 않을까요... 행사를 위해 좋은 날을 택했건만 그때와 똑같이 샘이라도 내듯 부산 앞바다는 비와 큰 너울이 일고 오륙도를 집어 삼켰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치가 부러졌다는 험난한 오륙도 바다. 맑은 술과 과포를 사해용왕님께 정성 담아 올렸더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을까 점점 하늘은 맑아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순풍에 깃발이 펄럭입니다. 항해를 위해 돛 올리고 사공은 치를 잡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저 멀리 대마도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최종 목적지 오륙도가 보입니다. 멀리서 3개로만 보이던 섬이 가까이 갈수록 숨어있는 것이 더해져 5개를 갖춥니다. 아름다운 비경에 눈이 맑아집니다. 오륙도를 돌아오는 길, 악공들이 연주하는 피리.팽과리.북.장구 소리에 귀가 즐겁고 몸은 덩실덩실 움직입니다. 어느 악공의 신들린 북소리는 먼 길을 떠나는 정사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처럼 멀리 울려 퍼집니다. 제 마음도 저 북소리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13차 항해를 위해 준비합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그날을 위해.....!

정홍일
_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날씨가 좋지 않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점차 날씨가 좋아지고 승선에 참여했던 부산시 민들께서 항해에 대단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행사 진행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많은 시민들께 조선통신사와 통신사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춘
_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부산 도착 후 행사 준비 와중에 비가 많이 내리고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면서 날씨 걱정이 컸고 일부 회차가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오륙도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어준 부산문화재단 여러 선생님들과 우리 연구소 식구들을 행사기간 내내 챙겨주느라 너무 고생하셨던 김효정 선생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경호
_ 조선통신사선 선장

곳은 날씨로 걱정했는데 다행히 좋아져서 부산시민과 문화재단 관계자, 우리 연구소 관계자, 우리 통신사선 모두가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되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승민
_ 조선통신사선 기관장

행사 첫날부터 날씨가 변덕스러워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모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행사가 진행될수록 날씨가 회복되어 마지막 날에는 작은 바람대로 부산 시민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대환
_ 조선통신사선 항해사

안 좋은 날씨 탓에 전체 프로그램을 다 소화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점점 좋아지는 날씨 속에 시민분들이 배를 타고 부산 해안의 경관과 함께 공연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만족스럽고 부산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사업

글_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釜山文化財団・文化遺産チーム

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登録3周年の記念事業

釜山文化財団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の拡大に伴い延期することになった2020朝鮮通信使祭りを、非対面型のオンライン中心事業として衣替えし、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登録3周年の記念事業として規模を縮小して行います。朝鮮通信使に関する記録物のユネスコ登録3周年を迎え、諸々のイベントを通して、今までの民間中心の韓日文化交流の成果を顧み、朝鮮通信使による韓日両国の未来志向的な関係構築に貢献していきま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사업 개요

기간 2020. 10. 12.(월) ~ 11. 8.(일)
장소 조선통신사 역사관 등 부산 전역
주최/주관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행사 구성

일 자	세부 행사명	시 간	장 소
10. 30.(금)	해신제	19:00 ~ 21:30	영가대 및 조선통신사 역사관
10. 23.(금)	2020 조선통신사 국제 학술 심포지엄	13:00 ~ 18:00	라마다호텔
10. 23.(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 메시지	-	한일 양국 관련 홈페이지 공개
10. 16.(금) ~ 26.(월)	특별 기획전시 '평화의 사절단-조선통신사'	10:00 ~ 17:00	한성1918
9. 28.(월) ~ 11. 27.(금)	신新조선통신사 필담창화	-	온라인 접수
10. 12.(월) ~ 11. 8.(일)	조선통신사 & 유네스코 등재 홍보부스	-	서면, 해운대, 부산역, 영화의전당 등 부산 주요 지점
연계행사			
10. 13.(화) ~ 11. 6.(금)	조선통신사 역사관 기획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초청전	09:00 ~ 18:00	조선통신사 역사관

※상기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사업 행사 자세히 보기



해신제

- 조선통신사 사절단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
- 제수 및 절차는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진행하며, 다큐멘터리 제작 후 온라인 제공 예정



기획전시 '평화의 사절단-조선통신사'

- 유네스코 기록물 및 등재 관련 사진, 영상, 소향회 제작 한지 인형 등 조선통신사 관련 콘텐츠 전시



조선통신사 국제 학술 심포지엄

- 20명 내외의 기조 강연 및 발표, 토론
- 웨비나(Webinar: 인터넷 회의) 진행
※ 추후 참여 링크 별도 안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 메시지

- 등재 관련 한국 및 일본 주요 인사들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 메시지 발신

신新조선통신사 필담창화

- 부산 거주 초·중·고등학생 대상 백일장 대회 (미술, 산문 등)
- 부산 거주 대학생 대상 논문 공모대회



조선통신사 & 유네스코 등재 홍보부스

- 유네스코 등재 3주년 홍보를 위한 야외 홍보패널 (부산 전역, 비대면) 운영
-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과 연계하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16개) 동시 홍보

연계행사 조선통신사 역사관 기획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초청전

-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재 3주년 및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한국의 유교책판) 초청 전시
-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초청 전시

조선통신사 역사관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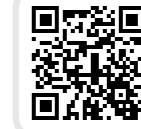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tongsinsa.com



 인스타그램
joseon_tongsinsa




 페이스북
www.facebook.com/
tongsinsa



 유튜브
www.youtube.com/
user/tongsinsa



QR코드 인식 방법 네이버 앱 → 검색창 옆 카메라  클릭 → QR코드 인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QR코드를 통해 <조선통신사 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아쉬웠던 점,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등 여러분의 의견을 매월 15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